

美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증거 없다” 결론

사법 방해 의혹은 판단 유보 법무부·백악관 “완전 무죄” 민주당 “무죄 결론 아니다”

지난 22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 온 로버트 무러 특검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의회에서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법방해 의혹의 경우 명확한 결론 없이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은 물론 의회 자체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열어뒀다는 평가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특검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무러 특검은 2016년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또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여러 증거가 수집됐다면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공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결론을 도출한 것과 달리 사법방해 의혹은 아무런 사법적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방해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뒤따랐다. 사법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러 특검의 수사 측면에서는 러시아 공모 의혹보다 더 관심을 모았던 쟁점이었다.

문제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요약본상 무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바 장관은 무러 특검팀이 보고서에서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조사한(대통령의) 행동들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무러 특검이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가 사법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과 사실의 “어려운 이슈”를 미해결로 남겨뒀다는 것이 바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무러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 장관은 특검이 자신과 로드 로준스타인 부장관에 대해 판단을 남겨뒀다면서 “나와 로드 로준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은 당사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날선 공격을 버리고 있다. 특히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특검 보고서와 법무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면서 바 장관에게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이 아니라 의회이며, 이는 의회의 특권이라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은 무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고, 공화당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동상이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실행할 경우 민주당 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가 재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최악 사이클론’ 사망자 750명 넘어서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를 덮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사망자가 750명을 넘어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모잠비크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446명에 달하며, 짐바브웨는 259명, 말라위에서는 최소 5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셀소 코레이아 모잠비크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잠정치이며,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지고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희생자 수는 1000여명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피소에 수용된 이재민은 11만명이라고 코레이아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콜레라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확산은 불가피하며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콜레라 치료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지 구호 인력들도 대피소 내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서비스전 로드 스탬퍼는 현재 대규모 야전 병원 두 곳과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모잠비크 중부를 훑어 도우미 필요한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이클론의 피해를 본 모잠비크 존 세그레도의 마을 주민 올리야나 코스타는 “정부에서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구호 물품을 하나도 받지 못해 마을 주민들이 허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영 브렉시트 반대 100만명 시위 영국 수도 런던에서 주말인 23일(현지시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반대와 제2 국민투표 개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 정치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5일 0시 현재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의회 청원의 서명자 수가 531만3616명을 기록했다.

김정은 방중 1주년...올해 북중 정상간 상호 답방 유력

김, 중일대일로 포럼 참가 시진핑, 상반기 중 방북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북·중 정상 간 상호 답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초청받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달 또는 늦어도 하반기 초까지는 방북할 것으로 알

려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밀월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더구나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못지않게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북·중 양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사이에 예술단 공연을 포함한 각종 교류를 통해 김 위원장 방중 1주년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첫 방중을 이어 그해 5월과 6월에

일방적으로 중국을 찾아 정상 국가 간 외교로 보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예정되는 등 관계 강화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 등을 기념해 내달 방북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내달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어 시 주석은 올해 상반기 말 또는 하반기 초로 평양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7월 방북설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4〉 백거이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자는 낙천으로 낙양 인근 신정 출신이다. 중당(中唐) 시기의 대표적 시인이다.

소년 시절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었다.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가련한 어린 시절, 곤궁한 시절이었네”(可憐少壯日 適在貧賤時)라는 시구를 남겼다. 800년 진사에 급제했다. 교서랑을 거쳐 현위로 근무하며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했다. 처사 진흥과 교유하며 양귀비의 묘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장한가(長恨歌)를 썼다. 807년 한림학사 808년 좌승유로 승진했다. 간관(諫官)으로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위법이 있으면 직언”하는 공복의 자세를 보였다. 807년 번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해 다음과 같은 상소

유익과 함께 유백(劉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시는 통속성과 사회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다. ‘안사의 난’ 이후 문단은 시의 자연미와 소박함을 강조하였다. ‘늙은 부인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짓는데 진력했다. 안사의 난과 번진의 반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중앙은 재정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회사이다. 백거이가 선구적 역할을 했다. “문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저자 되어야 하며 세상에 맞추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일찍이 “글재주가 이렇지니 장안에서 사는 건 문제 없겠소”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글재주가 탁월했다.

장한가는 806년 주질현위로 재직 중 왕질부, 진흥과 같이 선유사에 놀러 갔다가 지은 시다. 현종과 양귀비의 사

실천문학 선도한 中唐 대표 시인

문을 올렸다. “최근 들어 각 도의 절도사가 조정의 명을 받기 무섭게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환관이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는 안된다는 상소도 올렸다.

재상 무원형이 절도사 이사가도 보낸 자객에게 입결 중 피살되자 살해한 범인을 붙잡아 반드시 설욕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여러번 올렸다. 이로 인해 강주사마로 좌천되어 6년을 보냈다. 이때 비파행(琵琶行)을 지었다. 충주자사, 향주자사, 소주자사를 역임했다. 향주자사 시절 서호에 제방을 쌓아 관개와 저수 작업을 했다. 지금도 백거이 제방이 남아 있다. 828년 형부시랑으로 중앙에 복귀했다가 하남윤으로 낙양에 내려가 계속 살았다. 장안을 멀리해 당쟁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선비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시와 술과 거문고를 삼우(三友)로 삼아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는 호에 걸맞게 유유자적의 삶을 영위했다.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했는데 회창법난(會昌法難)으로 사찰이 폐지되고 승려들이 환속되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846년 75세로 죽었다.

랑을 다룬 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패륜적 만남과 사랑을 풍부한 감정으로 묘사해 깊은 회한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37세에 부인 양씨와 결혼했다. 친구 양여사의 사촌 누이로 평생 깊이 사랑했다. 중당 이후 최고의 실천 시인으로 평가된다. 원진 등과 함께 신약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했다. “자고로 문학이란 임금과 신하, 백성, 만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유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학의 사회적, 실천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걸작 비파행(琵琶行)은 816년 강주사마로 있을 때 쓴 것으로, 늙고 시든 장안의 기생이 장사꾼의 아내가 되니 강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을 다뤘다. 829년 58세에 얻은 아들이 3년만에 죽었다. 죽마고우인 시인 원진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비명을 써주던 유족들이 사레금을 주었다. 사레금을 낙양의 향산사 보수비용으로 기증했다. 846년 죽으면서 시인 이상은이 묘비명을 쓰도록 하고 후한 사레금을 주었다고 한다. “이상은은 재능이 있으나 고집이 세서 살림이 가난하고 고달프니 사레금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묘비명을 그가 쓰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는 휴머니스트였다.

백거이는 이백이 죽은 지 10년, 두보가 죽은 지 2년 후 태어났다. 시인 한유와 더불어 이두한백(李杜韓白)으로 불리운다. 원진과 함께 원백(元白)으로,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